

# 잘 씹은 암죽같은 글로 대중과 이야기

## 판화가 이철수 화백

사랑하는 이를 뒤로 하고 울고 넘었다는 천동산 박달재 아랫마을 사는 판화가 이철수 화백(59)집 앞, 잠자리가 한가로이 노니는 가지런한 눈을 낚 놓고 바라보는데 마중 나온 이 화백이 말을 건넨다.

“우렁 각시 도움으로 벼농사 지은 지 한 십 오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짐사람하고 돌이 꼬박 눈에 매달려도 일이 그치지 않았지요. 김매다가 짐 사람이 쓰러진 적도 있을 만큼. 그런데 요즘에는 눈에 들어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먹을거리를 모두 길러서 먹으려니까 밭농사도 이것저것 골고루 지어요.”

확실하게 앞가림을 하고 산다는 말씀이다. 담쟁이가 소복이 덮인 벽 사이로 능소화 넝쿨이 운치 있게 늘어진 때문에 들어서니 잘 다듬어진 잔디 위로 활짝 핀 백련이 손들을 반긴다.

“제가 아주 젊어서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부처님 일대기’를 봤어요. 반듯한 우리말로 번역한 부처님 일생을 만나면서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신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무소유)란 수필집도 내셨더군요. 이런 인연이 쌓일 거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뒷날 제가 스님 대표작 <무소유> 표지 그림도 그리게 되고, 이렇게 만나고 또 흘러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

### 스님이 번역한 부처님 일대기 보며 ‘이렇게 친절한 분이 계신가?’ 느껴 법정 스님은 씨앗을 많이 뿌리신 분

어요. 씨앗을 많이 뿌리신 분이세요. 저는 어려운 걸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어려운 걸 쉽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따르고 존경했어요. 스님도 그런 분이셔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같이 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인터뷰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 화백은 법정 스님을 언제 어디서 보았는지를 떠올리려고 지난날을 곰곰이 되짚어봤지만, 아스라이 기억 저편으로 사라진 스님과 첫 만남을 떠올리지 못했단다. “처음에 청학 스님과 같이 보였을 거예요. <불일회보> 연재를 할 즈음이었다고 기억을 해요. 저는 사람들과 이야기 줄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스냅사진처럼 화면을 떠올려요. 대사들을 떠올려야하는 상황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오다가다 장삼이사(張三李四)로 된 게 아니어서 긴장하면서 보였을 텐데도 어디서 어떻게 보였는지 도무지 기억 나지 않아요. 이오덕 선생님은 우리부부 주례를 서주셨는데도 처음에 어디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이 어른하고 빈 걸 떠올리지 못하니 참 딱한 일이지요.”

사람마다 기억소자가 다른데 어쩌랴. 판화는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젊어서는 그냥 책만 열심히 봤어요. 70년 대 말 군대 제대를 하면서 세상이야기를 하는 그림이 별로 없기에 ‘나라도 하자!’는 생각으



대중적인 않지만 항상 깨닫고 생각하게 만드는 '선화'를 계속하려고 법정 스님은 이철수 화백을 볼때마다 조연했다.

로 시작했어요. 보고들은 것이 적은 탓도 있었지만 문학은 세상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미술엔 별로 없었어요. 책에서 이따금 외국 사례와 만날 수 있을 뿐. 그림을 시작하면서 세상이야기하기에는 판화가 가장 좋겠다 싶었습니다. 진보 쪽에 서서 청년기를 넘기면서 보니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실망감을 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더군요. 자신을 돌아보는 힘이 진보에 반드시 필요한 힘인데 저나 제 동료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이 너무 모자랐어요. 게다가 안팎이 다르지 않다는데 바깥에다 대고 손가락질하는 그림을 심년 가까이 그리며 살다보니까 ‘너는 어떤데?’ 하는 의심도 스스로 품게 되면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미술사자들이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앤디 워홀이 캠프 통조림 캔이나 바나나 따위를 실스크린으로 그려 내 독특한 세계를 이뤘듯이, 이철수 화백도 그 못지않게 이철수다운 세계를 펼친다. “출발은 오묘하고 답답하지요. 그런데 심년 가까이 지나니까 제가 보기에도 오묘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가까이서 손을 늘 잡아주는 이현주 목사님이 기독교하고 할 때는 재미없었는데 불교하고 만나니 날개를 달았다고 하고, 권정생 선생님이 ‘철수 안에 저렇게 예쁜 게 들어있었구나’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조금씩 제 세계라고 할 만한 게 생긴 것 같아요. 날개를 다는 순간이 와야 하는데.” 이 화백은

### 바깥에 손가락질 하는 그림 그리다 그림 변화하면서 불교다움과 만나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판화 연재

그림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불교다움과 만났다고 돌아본다. 불교와 만났다고 하지 않고 불교다움과 만났단다. 겸손하다. “<불일회보>하고도 그래서 연이 닿기 시작했어요. 청학 스님이 아무것도 없는 하얀 한지로 도배를 한 방에 앉아 있던 것은 떠올라요. 아무것도 없어서 인상 깊어 남았어요.” 그런 인연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 법정 스님이 밭값이나 하고 가야겠다는 만든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가 1995년 3월 창간되고 넉 달 뒤인 7월부터 소식지 일곱은 이철수 화백 판화로 꾸며졌다. 그 뒤로 이 화백 판화는 4년 6개월이나 맑고 향기롭게 정신을 오롯이 담아 맑고 향기롭게 운동가들에게 띄웠다. 법정 스님하면 떠오르는 수필집 <무소유> 3판을 낼 때도 강원도 산막 이미지를 오롯이 드러내는 이철수 화백 작품을 표지 그림으로 썼다.

“법정 스님이 괴팍하신 데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팍하심이 우리 집에서는 존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웃는 일이 많았어요. 세상에서 당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 밖에 없다고. 하하.” 이 화백은 웃으면서 부인 이여경 여사를 가리킨다. “가끔 오셨어요. 가을걷이를 하고 바 타작할 때 당신도 팔 걷어붙이고 타작을 하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스

님 모습이 뽀뽀 좋았는데 모시고 온 분들은 어쩔 줄 모르던데요.” 이 화백은 법정 스님하고 당신이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스님을 잘 챙겨드리지 못했다고 돌아본다. 스님 성정으로 보아 깎듯하지 않고 스스럼없기에 외려 편안해 하지 않으셨을까 싶다. 이 화백 화실에 들면 은은하게 청록빛깔을 띤 널따랗고 근사한 찾상이 반긴다. “어느 해인가 저 상을 가져다 놔는데, 스님이 상을 보시고는 멍청하시더라고요. 아주 잠깐, 그러시더니 얼른 수습 하시고는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상이 크고 좋아 보여서 엔틱이라 여기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데 앓을 지리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철이 되지 않은 말간 상을 사다가 다리 밑동 자르고는 끝을 뽀뽀하게 바꿔 직접 칠을 해서 다듬었다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잘 만들었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래 전 어느 해인가 이 화백은 선화(禪畵)라고 할 만한 그림을 따로 모아서 달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일반달력보다 훨씬 덜 나갔다. 그 이듬해 말 스님이 선화달력이 올해도 나오느냐고 물었다. 팔리지 않아서 만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스님은 그 뒤로도 이따금 선화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다 돌아가시기 몇 해 전부터는 이 화백을 볼 때마다 선화를 계속하라고 한 마디씩 꼭 건넸다. 그래도 이 화백은 곳곳하게 장사도 안 되는데 만들어 뭐하겠느냐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거나 팔리지 않더라도 좀 남겨놓고 죽으면 좋겠느냐고 말씀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가에서 스님이 대중과 호흡하는 글을 쓰셨다고, 특히 선승들은 ‘선승으로써는 재미없다’고 깎아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스님 글을 보면 공안이나 선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살아오신 내력을 꼭 살펴보면 ‘공부는 당신이 하고, 대중들과는 잘 씹은 암죽 같은 글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이 관찰해보았어요. 제게 선화를 계속하라고 하신 까닭도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인기인처럼 되어서 그동안 힘든 일이 많이 겪으시는 모습도 뵈고, 둘째 사람들 하소연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안타까웠어요.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내외가 앉아서 스님이 사람 복은 없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철수 화백 말을 부인 이여경 여사가 받는다. “우리 모두 그냥 어떤 인물을 받아들일 때 보이는 대로, 겪은 대로만 받아들이잖아요. 큰 사람하고 사이에서 생긴 작은 사람 허물이 꼭 그 사람 잘못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큰 사람은 관찮은데 작은 사람 잘못이라고 해요. 돌아켜보면 어른이 잘잘못을 제대로 짚어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어요? 정말 잘못하는 사람은 내치면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다 잘못을 하고 어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들 해요. 그러면 제가 나서서 그래요. 어떻게 다 그 사람 잘못만이겠느냐고. 문제를 보면서 옆에서 어른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들이나, 실체를 바로보지 못하는 어른도 문제이지 않느냐고. 그런 말을 하니까 스님이 저보고 편하다고 그러셨던 거죠. 저희 집에 스님을 따라오는 보살들 가운데 공양거리며 반찬을

## 다양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부영이걸이

움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움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움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영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녕을 기원해주는 새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양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움자차걸이 4종류

목어걸이

종류	가격	제조	용도	기타
움자차걸이	33,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빨강,노랑,파랑,녹색
부영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영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영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영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페퍼민트 자연향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있을 때는 불이라... 언뜻엔 내가 누군가 있었을까 언젠가 거칠게 들리다가 타더라도, 끝까지 타고  
‘무자화두’ 정수 2011 11

이철수 화백의 작품 '무'



판화전시회 도록 글을 직접 써 주실 정도로 법정 스님과 교분이 두터운 이 화백이 집문 앞에서 환히 웃고 있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는 이들도 있어요. 기본이 나빠요. 그래서 스님께 퇴박을 댔어요. '그 분들 마음을 받으시려면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서는 저희 밥을 드셔야지요.' 스님을 모시고 온 보살들은 공양 할 때 스님과 마주 앉지도 못해요. 바보들이야. 제가 스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스님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보살은 장한이 엄마밖에 없어.' 그러시며 웃으셨어요. 제가 농담처럼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이 은근히 즐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싫으면 싫으니까 그만두라고 대놓고 말씀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앞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어요. 모시는 어른 좋은 점을 내세우려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하죠. 실수나 허물이 다 그 사람들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저런 자잘한 허물도 가지고 계시는 스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도 허물이 큰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드러내놓고 쉽게 않은 일인데, 당차다. 바로 이 당참이 스님 발걸음을 박달재 아래로 이끌었을까?

### 무문관 48칙 '그림 평창' 밑그림 완성 무문관 선화는 스님 말씀에 대한 화답 "팔리지 않더라도 선화를 계속하라"

있어요. 그런데 스님이 이 화백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이 화백이 싫다면 그만두라고 하셨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그 뒤에 스님이 제 전시회에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스님한테 제가 스님하고 들어서만 뵈고 드릴 말씀이 있으니 시간 좀 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놀라시더라고요. 짐사람 얘기대로 주변 탓만 돌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스님이 모르고 계시는 일이라면 제가 받은 느낌을 스님께 전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돌아가실 때까지 스님을 뵈지 못했어.' 이야기 줄거리로 보아 이 화백이 그 말씀을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님 병환이 깊어지는 바람에 만날 겨를이 없었더었다.

윤이든 행운이든 한 얼굴로 다가오는 게 아니니까요. 돌아가시고 나서 불일암을 TV뉴스에서 비춰주는데 제 그림이 걸려있더라고요. 스님 한 분이 바람을 거슬러서 나뭇잎이 휘날리는 곳을 걸어가는 그림인데 스님은 그런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법정 스님은 이 화백 판화전시회 도록 글도 쓰셨다. "내 (山居) 한 쪽 벽에는 이철수 판화 (소리 - 바람 부는 날 나뭇잎들)이 걸려 있다. 가을바람에 나뭇잎들이 온통 떨어 흩날리는 그 속으로 한 수행자가 가사자락을 날리면서 바람을 거슬러 두뼘뼘 걸어가는 그림이다. 이 '소리' 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아늑한 평온이 내 안에 깃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슴아슴 보이는 것 같다. .... 이철수 글에서는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산촌에서 쇠머물 삶는 질박하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단순하고 질박한 판화가 걸린 간결한 화제는 그림과 어울려 선미(禪味)를 풍겨주고 있다 ....."

이철수 화백은 무문관(無門關) 연작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다. 무문관 48칙을 하나하나 그림으로 만드는 일인데, 밑그림이 거의 다 된 이 무문관 연작이 선화를 해보라고 했던 스님 말씀에 대한 화답이라는 이 화백은 이 일을 그림으로 평창을 다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다른 일이 생겨서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문관)을 비롯해 앞으로 (조주록)이나 (벽암록)처럼 평소 가까이 두고 보던 책 몇 권을 가려내어 풀어보려고 해요. 이 일은 제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스님 말씀이 큰 동인(動因)이 되었어요. 그때 그렇게 드나드실 때마다 말씀하셨어도 '내 몫이 아니다'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라도 스님 뜻을... 재밌는 책이 될 거예요." 기대된다. 어떤 모습일까요?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명예교수

### 생활의 즐거움

참 즐거운 일이다. 날씨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말이다. 누군가는 새삼스럽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조금 생각의 여유가 있다면 세상 모든 일이 고맙고 즐겁지 않을까.

백엽상의 온도계에 의지하지 않고, 다만 체감 온도도 오늘 날씨가 어떻게 감지 할 수 있으며 습도 또한 얼마나 높아 찌는 날이 될지도 피부에 휘감기는 옷의 상태만으로도 알 수 있다. 기계가 어찌 천기를 읽을 수 있단 말이나. 내가 천기를 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민감한 생체 리듬의 변화 때문이다.

또한 매미와 여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력이 있어 좋다. 매미의 경우 보통 6년 간 땅속에서 성충으로 생활한다고 하며 영양 공급원은 수액이라고 한다. 번데기 과정 없이 화장한 날 어른벌레인 매미가 되는 것이다. 매미의 수명은 단 한 달. 그동안 살면서 종족 번식을 위한 절기가 사람들에게는 노래 소리로 들리기도 한다. 농사일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농부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기실 속내를 알고 보면 부러워 할 일도 아니다. 암컷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유인할 때 우는 사람의 세레나데이니까 말이다. 이를 유인음이라고 한다. 다른 수컷이 방해해서 질투심으로 우는 방해음도 있다. 그리고 적에게 잡혔을 때 비명을 내어 적을 위협할 때 우는 경고음들이 있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유형을 비단 분간하지는 못한다 해도 수컷 복부에 훌륭한 발성기관이 있어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매미가 신선놀음에 취한 것이 아님은 알고 있으니 이 또한 즐거운 일이다.

가을 전령이며, 밤의 파수꾼인 여치여. 초저녁부터 밤이 이속하도록 가을밤의 정취에 취하게 하는 마술사가 여치이다. 그믐달이 서산마루에 걸려 있는 새벽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깨어나게 하기도 한다. 두 날개를 비벼 울음소리를 내면 암컷이 듣고 와 짝짓기를 하여 종족번식을 하기 위한 성스러운 시간이 된다.

잔디밭을 걷다 보면 잡초가 눈에 들어온다. 밝은 시력 덕분이라 또한 즐겁다. 나뭇가지에 걸어 놓은 호미로 이내 잡초를 뽑아낸다. 물론 잔디가 상하지 않게 하려면 신경을 써야 한다. 뽑아 놓은 잡초는 염전에 하루만 지나면 시들 시들해진다. 잔디밭에 잡초는 점령군이 되었지만 잡초는 항변할 것이다. 본래 이곳은 우리 땅이었다고. 언제부터인가 잔디라는 점령군이 진군하여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객의 전도란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식물의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도 이러한 일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곧 동화되고 말한다. 물질에 동화되고 불의와 타협하여 숙고한 이성마저 잃어버린 경우가 허다하다.

폭포에서 비춤이란 단 세상 일인 듯하다. 이 과수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라. 아니, 어느 계곡에 있는 몇 길 폭포를 보아도 그렇다. 정지되어 가라앉은 물만이 비춤이 가능하다. 겨울은 정지 되어 있으므로 만물을 비출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삼라만상을 받아들이고 버겁다거나 피로할 줄 모르는 겨울의 모습에서 큰 품을 배우고 관용과 인내를 배운다. 사랑분별심이 소멸된 겨울이다. 인간도 선악미추를 탈탈 털고 살 수 없을까.

평상심을 얻으면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지각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 평상심을 오직 자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인 것이다.

법음을 전할 수 있는 즐거움은 생활의 백미가 아닐까 한다. 이따금 법회에 초대받는 날이면 가슴이 뻥뻥. 회열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감성에 의탁하기도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덕이 되는가 비유해 놓은 경구(금강경)에서 배울 수 있다.

### 잔디밭 잡초 점령하면 주객전도

### 불의·물질에 타협하는 세상 닳아

### 중생도 선악미추 털고 살아갈길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며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깊은 성찰이 따르게 된다.

법회를 마치고 공양을 하고 있었다. 옆에 누군가가 다가서기에 바라보았다. 낯선 보살님이었다. 미소를 머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음료를 식탁에 놓으며 마시라는 몸짓이 있었다. 판에는 무슨 언어적 표현이 있었으나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레 고마운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녀의 거동을 살피니 공양간으로 발길을 옮겼다. 옆의 스님에게 외국인이라고 물었더니 말이 서툴렀기 때문이었다. 아, 그러면 언어장애인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렇다는 간단한 대답에 가슴이 정해졌다. 생각건대 그녀는 소리는 정상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법회 내용을 열심히 들었나 보다. 후원 일손을 거드는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대가국사의 의전 스님은 고려 문종 임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기 전생 말년에 가서 앉은뱅이로 시작장애인으로 말더듬이 장애로 불운이 겹쳐 삼상에 겪을 고통을 한 생애 모두 받고 몸을 바꾸어 왕자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였다. 상처가 아물 때 쯤 되던 아팠던 부위가 더 가려운 이치와 같이 고통이나 재앙이 소멸될 때에도 더욱 치성하게 되는 듯 견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였다.

생활의 즐거움이란 이래저래 더욱 즐겁다.

(주)에스엠티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대한항공 취항**  
파고다의 황금 빛 파노라마를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5일 (목,토요일 출발) 특가 899,000 (유류세 별도)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화,일요일 출발)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7일 (목,토요일 출발) 요금문의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스님들 추천 상품**

-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1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 ▣ 중국 지장도량 (구황산, 황산), 관음도량 (보타산, 낙가산) 7일 / 129만원 (추가 경비 일체없음)

**인도성지순례 - 6명이상 출발 가능**

- ▣ [신비의 나라] 인도여행 9일 - 겐지스강과 골드트라이앵글 화-목-토 출발 / 요금문의  
네팔 인도 불교8대성지 완전정복 13일. 대한항공 직항. 월요일 출발가능 / 요금문의  
\* 인도상품 다양합니다. 문의주세요
- ▣ [실존의 나라]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 189만원. 금-일요일 출발
- ▣ 라오스 성지순례 6일 / 토요일 출발 /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헤거 합장**

**藝園®** <http://www.에원몰.com>

**법복/생활한복/단체복/기업체 유니폼/티셔츠**

**▷ 소백산 구인사 대조사전 "부산 삼광사 백만독 회향대법회" 남품사진 ◁**

- 공장 직영 도소매 판매 / 온라인쇼핑몰 및 상설매장 년중운영 /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
- 브랜드 남품한복 다운패딩 할인판매 / 단체복 (티셔츠/모자/바람막이/유니폼/쥘리닝) 상담환영
- 고객님과 불자님들의 상담방문을 환영합니다.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상담 문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이앤씨드림타워 7차 1310호 수(秀)어패럴(株)  
TEL 070-4010-4800 / H.P 010-4660-8814